

# 감비아에서 소식 전합니다

2017년 1월 15일

사막 기후인가 봅니다. 늦은 밤과 이른 아침은 춥고 낮은 덥습니다. 아침에 방안 가득한 차가운 새벽 공기를 느끼며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가면 방새 집을 지킨 강아지들이 격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수고한 녀석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는 맛깔나게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또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거리에는 차들과 동물, 사람들이 제각기 갈 길을 갑니다. 족히 50년 이상 된 벤츠 택시가 디젤의 검은 연기를 내뿜고 앞서 가면, 그 틈을 타 염소 세 마리가 앞 다투며 길을 가로 지릅니다. 길 한 편에 한 가득 머릿짐을 진 아낙네와 아이들이 걸어갑니다.

복잡한 지역을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면 탁 트인 시야에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몸통이 굵고 레게 머리 스타일처럼 가지를 펼치고 있는 바오밥 나무가 아프리카의 정서를 더해줍니다. 여기저기에 소치는 소년들이 소 무리를 따르다 저를 쳐다봅니다. 하이웨이에서 마주치는 시골 마을들, 소박하다 못해 사람이 살고 있을까 싶은 남루한 집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마당이 말끔하게 쓸어져 있고 아이들이 그 속에서 뒹굴며 놀고 있습니다.

흙에서 자라는 아이들. 자기 머리만한 플라스틱 통을 하나씩 들고 다니며 동전을 모읍니다. 탈리베 (학생, 제자라는 뜻의 아랍어에서 나온 말). 집을 떠나 타지에 보내져서 코란을 배우는 아이들입니다. 부모의 손이 닿은 지 오래되어 얼굴에는 흙 먼지로 화장을 한 듯 하고 찢어진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삶의 수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순수한 웃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감비아에 온 지 1주년이 되어갑니다. 작년 2월 3일에 공항에 내리며 말았던 밤 공기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과 격려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학생들이 저를 놀래켰습니다. 가을 학기를 마치면서 기독교 학과 학생들을 집에 모두 초대했습니다. 한 학생이 돼지를 가져온다고 해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세 명의 학생들이 가지고 온 것은 살아 있는 아기 돼지였습니다. 그리고는 마당 한구석에서 돼지를 잡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옛날 어릴 적 고향 생각도 나기도 했구요. 오후 12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한



파티에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2-3시간 늦게 나타났습니다. 감비아 타임! 식사를 마치고 학생들이 돌아가며 감사의 말을 하는데, 모두 공부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해하며, 교수들에게도 많은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설교. 브리카마라는 마을에 한인 선교사님이 사역하시고 계십니다. 12월 말과 1월 초에 두 번 주일 예배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50명 정도의 청소년들과 성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 안에서의 꿈을 전하며 좋은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고한 후의 기쁨. 제가 다니는 웰링가라 교회에서 크리스마스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2017년의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교를 휴학 하고 1년 단기선교사로 온 자매가 있습니다. 교회가 운영하는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수고하다가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수고한 자매에게 교회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따듯하고도 벅찬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한 후에 주께 받을 "생명의 면류관"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감비아를 보았습니다. 방학 중에 시간을 내어 감비아 강 저편 북쪽에 있는 Kaur (카우르)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한인 선교사님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그야말로 감비아의 시골 지역입니다. 나귀가 끄는 수레를 타고 강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들판을 지나며 벼들이 자라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마을에는 선교사님 가정을 제외하고는 기독교인이 단



한명도 없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신지 4년째, 마을 사람들과 관계를 쌓으며 긴 안목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 가정과 많은

대회를 나누며 격려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지 식당에서 먹은 '베네친'이라는 아프리카 음식)





그곳 까우르에서 차로 15분 정도 떨어진 지역에 일본인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독신으로 사시면서 감비아에서 30년을 선교사로 사셨습니다. 지금도 70세의 나이가 되셨지만 6년 전에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셔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사람들을 초대하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방문하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 하고, 마을 사람들이 구운 땅콩 한 통을 선물로 받아 돌아왔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지지치 않는 열정에 박수를 보내었습니다.

21년만에 재회. 1994년 대학 3학년때 저는 CCC의 형제들과 사랑방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느 밤에 형제 4-5명이 둘러 앉아 기도를 하며 장래의 비전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형제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고, 어떤 형제는 신학자가 되고 싶다고

하였고, 또 다른 형제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그 중 한 형제처럼 신학을 공부하고자 한다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네 명 모두의 기도가 그대로 이뤄졌습니다. 이 중 선교사가 되고자 한 형은 대학과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서아프리카 세네갈의 선교사가 되었고 그곳에서 16년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3년 선배인 이 형을 이번에 21년 만에 세네갈에서 만났습니다.



감비아와 세네갈은 서로 이웃하고 있습니다. 이 선배 선교사님 가정을 방문하며 옛 이야기도 나누고, 21년이 지난 후 한국이 아닌 서아프리카에서 만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신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학 때처럼 큰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영적으로 척박한 땅 세네갈에서 왕성한 사역을 하는 선배를 보며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선배 선교사님을 통해 일 한 가지를 받아 왔습니다. 내년 1월에 세네갈 다카르와 코르디부아르의 아비잔에 있는 신학교들에 가서 목회자들에게 강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돕는 마음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 감비아에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내적으로도 말씀 위에 탄탄하게 성장하도록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 감비아 사회가 더 정직하고 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기독교학과 학생들이 거룩한 일꾼으로 훈련되고 이 중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일꾼들이 나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저와 저의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주십시오.

❖ 세네갈 다카르 방문 때 찍은 아름다운 아프리카 사진 몇 장 올립니다.

